

'98 사료산업



이복영
한국사료협회 상무

1. IMF 관리체제하의 사료 산업

'97년 11월 이후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전 산업에 불어닥친 불황의 한파는 '98년도 우리나라의 축산·사료산업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연초부터 국내 금융기관들이 IMF측의 권고사항인 BIS 규제를 맞추기 위하여 여신규제를 하다보니 연지급 신용장 개설이 어려웠고, 모든 거래시스템이 현찰거래로 전환되면서 원료확보마저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수십년동안 구축해온 한국의 축산기반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갖게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 축산·사료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정부측의 입장과 수출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

서 미국상품신용공사의 GSM-102 신용공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겨우 벼랑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사료업계는 그후 곡가안정과 환율안정으로 인하여 6차례나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하며 축산불황 타개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수요감퇴와 판매감소의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80년 이래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오던 사료산업이 IMF 관리체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말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1,164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94만톤에 비해 10%나 감소하였다.

특히 일반 사료협회 회원사 공장들의 감소폭이 커서 축협은 2.8% 증가한데 반해, 이들 공장들의 생

산량은 14.2%나 감소하였다. 그중에서도 비육우 사료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 전년대비 16.2%나 감소하였다. 즉, 불황의 강도와 고통이 축종별,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하고 있는 금년도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은 6,500불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민들의 소비수준은 이보다도 더욱 떨어져야 할 입장이며, 그나마도 배합사료 생산량이 10% 감소한 것은 다행인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건전한 소비를 장려하는 축산물 소비캠페인까지 벌렸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공급규모가 감축되지 않는 한 또다른 묘책이 없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젓소송아지 가격이 10만원 미만까지 떨어지고 길거리에 유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같은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가져다준 IMF 관리체제는 사료업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즉, 지난해 11월 이후 6개업체가 회의신청에 들어가거나 조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체 판매력에 한계를 느낀 일부회사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자기공장에서 생산해주는 임가공업체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그나마 이정도에도 머물고 있는 것도 지난 2월 IMF 구제금융신청이후 미국으로부터 GSM-102 신용공여가 이루어져 일시적인 자금난이 해소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년만기로 6개월마다 상환이 돌아오는 구매자금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사료회사의 자금난이 다시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훗하다.

게다가 줄어드는 사료시장을 놓고 출혈판매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경쟁에서 뒤지는 사료회사들의 매출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가동율이 떨어져 고정비용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001년 쇠고기의 완전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물 수입개방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성장과 축산진흥이란 큰 우산 속에서 안주해오던 사료산업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료산업도 자율적

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그 대로 놔둘 경우 제살깎아먹는 출혈경쟁은 심화되고, 사료기업과 공장의 효율성은 떨어지며 결국은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물 생산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혼·배합사료 생산량도 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던 지난 1988년의 2,643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전망하기란 어렵지 않다.

현재 일본의 국민 1인당 사료생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IMF 관리체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축산물 수입증가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98년의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방과 경쟁의 파고속에서 사료업계가 IMF 관리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산업의 경쟁력없이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무의미하듯이 축산업계의 당면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사료산업만의 자구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실효를 거둘 수도 없다. 앞으로 사료업계의 모든 자구노력은 근본적으로 축산업계와의 이익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는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으로 나타나져야 할 것이다.

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97년초까지만 해도 주요 곡물들의 국제가격은 재고수준의 급락과 아시아지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상승하였고 '98년에 들어서도 지구촌을 강타한 라니나의 영향으로 가격상승이 크게 우려된 바 있었다.

그러나 막상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아시아

〈표 1〉 '98년 배합사료 생산현황

구 분	98. 1~10	97. 1~10	전년대비증감(%)
낙 농	1,516,757	1,717,839	
	13.0	13.3	▲11.7
비 육	2,595,608	3,530,006	
	25.4	27.3	▲16.2
양 계	2,843,020	3,136,122	
	24.4	24.2	▲ 9.3
양 돈	4,022,011	4,085,559	
	34.5	31.6	▲ 1.6
기 타	306,279	478,160	
	2.6	3.7	▲35.9
계	11,647,675	12,947,686	
	100.0	100.0	▲10.0

특 집

지역의 사료곡물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같은 예상은 어긋나고 근래 보기드문 하향안정세를 보여주었다.

'98년도 사료곡물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양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공급사이드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세계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대비 3.6%나 증가하였고, 전체 사료곡물도 3.1%나 증가한데 반해 소비량은 이에 못미침에 따라 재고수준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수급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국제곡물가격은 더욱 큰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실물경제 부문에 있어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더욱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료곡물의 경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오던 아시아지역의 배합사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우 지난 10월말까지 10%나 감소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절반이상이 줄었다.

그동안 곡물소비에 있어서 가장ダイナミック한 시장으로 성장해오던 아시지역이 금융위기를 맞아 이처럼 곡물소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같은 현상이 러시아, 남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공황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와 함께 자원을 가진 나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이같은 수요감퇴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표 2〉 97/98년 세계곡물 수급전망(USDA, 11월 10일 발표)

(단위: 백만톤, %)

구 분		생산량	총소비량		재고량	재고비율
			국내소비	수 출		
세 계 사료곡물	98/99. 11(A)	883.86	879.60	102.65	139.23	14.2
	98/99. 10(B)	882.93	880.42	100.97	137.29	14.0
	97/98(C)	885.56	877.22	103.42	134.97	13.8
	증감율(A/B)	0.1	-0.1	1.7	1.4	
	증감율(A/C)	-0.2	0.4	-0.7	3.2	
미 국 사료곡물	98/99. 11(A)	273.67	215.94	48.29	50.18	19.0
	98/99. 10(B)	271.33	215.94	47.66	48.58	18.4
	97/98(C)	265.42	211.94	45.25	38.17	14.8
	증감율(A/B)	0.9	0.0	1.3	3.3	
	증감율(A/C)	3.1	1.9	6.7	31.5	
세 계 옥수수	98/99. 11(A)	597.35	588.68	70.79	94.13	14.3
	98/99. 10(B)	593.82	589.19	69.96	89.90	13.6
	97/98(C)	576.65	582.49	73.51	85.45	13.0
	증감율(A/B)	0.6	-0.1	1.2	4.7	
	증감율(A/C)	3.6	1.1	-3.7	10.2	
미 국 옥수수	98/99. 11(A)	249.85	195.59	42.55	45.19	
	98/99. 10(B)	247.49	195.59	41.91	43.47	18.3
	97/98(C)	237.90	189.12	8.21	33.22	14.6
	증감율(A/B)	1.0	0.0	1.5	4.0	
	증감율(A/C)	5.0	3.4	11.4	36.0	
세 계 맥	98/99. 11(A)	588.29	601.38	114.59	123.76	17.3
	98/99. 10(B)	590.62	601.82	115.29	123.81	17.3
	97/98(C)	610.98	585.28	117.95	136.81	19.5
	증감율(A/B)	-0.4	-0.1	-0.6	0.0	
	증감율(A/C)	-3.7	2.8	-2.8	-9.6	
세 계 대 두	98/99. 11(A)	153.66	150.71	38.60	22.26	11.8
	98/99. 10(B)	153.63	150.16	38.13	23.17	12.3
	97/98(C)	156.19	148.93	39.96	19.09	10.1
	증감율(A/B)	0.0	0.4	1.2	-3.9	
	증감율(A/C)	-1.6	1.2	-3.4	16.6	
세 계 대 두 박	98/99. 11(A)	102.06	101.89	38.22	3.76	2.7
	98/99. 10(B)	101.66	101.64	37.99	3.72	2.7
	97/98(C)	100.05	99.57	36.90	3.76	2.8
	증감율(A/B)	0.4	0.2	0.6	1.1	
	증감율(A/C)	2.0	2.3	3.6	0.0	

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이 PL-480과 같은 무상공여였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공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보니 이처럼 감소하는 곡물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자금을 지원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한국의 곡물수입업체들을 지원하

기 위해서 GSM-102 신용공여를 통해 수억달러씩을 지원하였고, 호주, 캐나다도 유사한 Program을 발표하였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이로인해 수출경쟁력을 상실한 중국, EU에서도 유사한 신용공여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8월말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10억 인구의 중국이 홍수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방과 경쟁의 파고속에서 사료업계가 IMF 관리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산업의 경쟁력없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의미하듯이 축산업계의 당면한 문제점을 간과한채 사료산업만의 자구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실효를 거둘 수도 없다. 앞으로 사료업계의 모든 자구노력은 근본적으로 축산업계와의 이익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는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으로 나타나져야 할 것이다.

로 인하여 전체식량의 40%를 생산하는 양쯔강유역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부족분을 수입하게 될 경우 또다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양쯔강 홍수가 중국의 옥수수나 소맥의 생산지역을 비껴나가면서 생각보다 적은 피해에 머물렀고, 아직도 많은 곡물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등의 곡물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의 가격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형성되는 원월도의 선물가격이 될터인데, 대체로 원월도 가격이 근월도보다 비싸게 형성되고 있다.

즉, 수확기의 harvest pressure가 지나고 나면 이른바 정상적인 시장이라 불리는 Carrying Charge Market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보관

료나 금리를 감안한 수준만큼의 가격상승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국제곡물시장에서 가격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factor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특히 사료곡물 같은 경우 수입선이 변화되고 있고 수입곡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불가측 변수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사료곡물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사료용소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인지의 여부와 중국이 다시 곡물에 대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측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수입수요가 살아날 것인지의 여부인데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는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부기관 연구소에서는 내년쯤이면 경제가 회복되리라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 사설연구기관에서는 최소한 1년반을 잡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

은 최근 전세계적인 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볼 경우 단기간내에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이로인한 곡물 수요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제곡물시황은 안정세가 지속되어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곡물가격은 상당부분 이같은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이미 생산비 이하로까지 폭락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내년도 미국의 식부작업시 어떤형태로든 가격지지를 위한 노력이 뒤따르리라 전망된다.

결국 국제곡물가격은 당분간 단기적인 안정세는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가운데 수급에 빈틈이 생기면 언제라도 곡가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향후 곡물가격 및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장기적인 원료수급 및 가격전망을 바탕으로 가격이 유리한 시기에 미리 원료를 확보하는 장기공급계약(Long Term Contract)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급격한 곡가상승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외환 및 곡물선물거래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는 비가 새기전에 지붕을 고쳐놓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필자연락처 : 02-581-5721)